

# 가부장제 담론과 성 정체성 형성에 관한 문학교육적 고찰

정 정 순\*

1. 문제 제기
2. 한국적 가부장제에서의 남성과 여성
3. 가치의 갈등과 모색 : 개인주의적 가치와 가족중심주의적 가치
4. 가치 선택과 성 정체성 형성

## 초 록

본 논문은 한국적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드러나는 현대 한국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소설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남성상과 여성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중적으로 성공한 이러한 작품들이 독자들(본고에서는 교육적 관심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학생을 더 염두에 두고 있다.)의 성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교육적 처방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살펴볼 두 소설은 아문열의 『선택』과 김정현의 『아버지』이다.

두 작가의 작품이 주목을 요하는 이유는 이들 두 작품의 **문화적** 성취에 관한 논의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것이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민감한 한 대응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들 두 작품이 모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대중에 끼친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분담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남성 작가가 그림으로써 남성중심 사회에서 지배적 시각을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소설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가부장제가 가문의 지위에 대해 과중한 책무를

\* 서울대 박사과정.

부파함으로써 강한 남성 콤플렉스를 유도하면서 남성의 희생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사적 공간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미화하고 절대화함으로써 여성의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두 작품의 대중적 성공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이 어떤 식으로 유지, 관리되는지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성 역할을 간접적으로 규범화하여 독자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남성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내면화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과 결부되어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직접적인 개입과 조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이 구성되는 지점을 응시하도록 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유형화시키며 재구성해 냄으로써, 이를 다양한 삶의 가능성 속에서 변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성 정체성 형성과정에 자신의 성찰적 의지를 반영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러 역할들과 규범, 관습들 및 이에 대한 기대치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규정적인 구조가 존재하므로, 상호 인식의 복잡 미묘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기 원하는 개인이라면 이러한 요소들을 잘 선택하고 재생산해 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적 맥락에서도 수동적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서의 학습자의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개입해 나가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성 지배의 과정 혹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특성화된 모성애나 혹은 강한 남성상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시 보게 하고, 문학작품이나 대중매체에서의 재현물을 통한 추체험 및 비판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속한 가족과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관여하게 하는 것의 의미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 1. 문제 제기

최근 유교적 가치관이나 가부장적 질서에 관한 질문을 담고 있는 문학작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류작가의 대거 등단으로 인한 여성적 글쓰기가 문단의 화제가 된 바도 있으나, 이는 비단 글쓰기에서 여성성의 발현이라는 영역 확장의 의미만을 지니지는 않는다. 다루는 내

용에서 기존의 가부장제 중심의 가치관이나 도덕관념 혹은 사회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에 더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나 김형경의 단편 「담배 피는 여자」 등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피해 의식과 그 억압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이 여성작가들의 전유물인 것만은 아닌 듯하다.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 다르긴 하지만, 이문열이 이 땅의 항거하는 여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최근의 화제작 『선택』<sup>1)</sup>의 경우는 기존의 가부장제 질서에 익숙한 남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며, 베스트 셀러였던 김정현의 『아버지』<sup>2)</sup>는 한국에서 경제위기와 맞물려 무너져가는 아버지상을 복원하기 위한 힘겨운 고투라 할 만하다. 특히 두 작가의 작품이 주목을 요하는 이유는 이들 두 작품의 문학적 성취에 관한 논의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것이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민감한 대응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이들 두 작품이 모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대중에 끼친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소설의 경우 각각 가족 안에서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역설과 그 여성의 역할에 대한 찬양, 그리고 가족을 위한 아버지의 희생과 고독을 미화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가부장 중심의 질서를 고수해 나가려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권상실에 대한 위기의식이 가족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면서 여성들을 설득 회유하는 내용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가족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전통적인 가족형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왜 여성운동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는지<sup>3)</sup>를 짐작케 하는

---

1) 이문열, 『선택』(민음사, 1997).

2) 김정현, 『아버지』(문이당, 1996). 실제 『아버지』는 16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그러한 대중적 인기를 입증이라도 하듯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장길수 감독의 『아버지』는 박근형·장미희·홍리나라는 호화 배역을 내걸고 서울극장에서 개봉된 바 있다.

3) Barrie Thorne·Marilyn Yalom(1982), *Rethinking the Family*, 권오주 외 역,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한울 아카데미, 1991), p.7 참조.

부분이다.

가족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성 역할 분담에 대한 재고의 움직임은 제도교육의 내용에도 반영되고 있다. 기술과 가정이 각각 독립된 교과목으로 남학생과 여학생들에게 배타적으로 가르쳤던 것에서 이젠 통합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방향이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다소 기계적임은 부인할 수 없다. 변화하는 시대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것은 학생들의 구체적인 체험의 영역과 연계된 것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 정체성<sup>4)</sup>의 형성에 사회의 지배 담론이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가정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지배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담론의 재접합<sup>5)</sup>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혹은 그 실천을 그 귀결점으로 갖는다. 따라서 이 글은 그러한 처방적 성격의 차원에서 교육적 실천에 주목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성 역할의 내면화는 주로 가정과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교육적 실천과 불가피하게 연관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4) 일반적으로 성 정체성은 사회가 특정한 성별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와 태도를 개인이 내면화하고 이러한 기준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생물학적 성(sex)이나 성적 욕망(sexuality)보다는 사회학적 성인 젠더(gender)로서의 '성'에 가까운 개념이다. 현택수(1997), 「현대의 성 정체성」, 『경제와 사회』(1997), 가을호, 제35호, pp.96~99 참조.

5) 접합(articulation)은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최근의 문화이론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보편화된 개념이기도 하다. 사전적 의미는 이어 붙이는 것을 의미할 터인데, 문화이론에서는 담론간의 결합을 통해 지배 담론을 재구성해 가는 방법론적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다(Jennifer Daryl Slack, "The theory and method of articulation in cultural studies", ed. by David Morley and Kuan-Hsing Chen(*Critical Dialogues in Cultural Studies*, London and New York(1996))).

이 지점에서 교육내용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대중·통속 소설의 문학적 가치가 운위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제도교육의 역할이 ‘예술’과 ‘문학’의 보편적인 가치들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중 문화의 ‘사소함’을 평가절하하고, 이들 사이의 차이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sup>6)</sup>에만 머문다면, 이는 무엇이 진정으로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현실 문화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현실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실제의 삶의 영역에 두고 사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동시대 문화에 대한 포용과 검토를 수반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동시대의 문학적 체험의 공유는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고, 올바른 가치관을 수립해 가기 위한 한 디딤돌로서의 중요성을 지닌다. 작품의 구체성을 통한 문제적 현실의 체험은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능동적으로 자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동시대성을 포괄하는 문학 교육이 서야 할 자리는 다소 분명해진다. 일원론적 정신 상황에서는 자아 정체성의 문제가 전면에서 부각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다문화시대·다가치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자신의 가치기준을 확립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일 것이며, 능동적으로 가치를 선택하고 구성해 나가는 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sup>7)</sup>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일 것이기 때문이다.

---

6) David Buckngam & Julian Soften-Green(1997), *Cultural Studies Goes to School*, Taylor&Francis, p.2 참조. 이는 영국의 보수주의자들의 교육 정책관이다.

7) 사회학적 통념에 따르면 정체성(identity)은 자기 자신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집합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것은 근대 철학에서 가정한 통일적 주체가 의문시되면서 구성되는 주체에 대한 개념이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이진경, 「근대적 주체와 정체성」, 『경제와 사회』(1997), 제35호 참조.

## 2. 한국적 가부장제에서의 남성과 여성

가부장제란 사회제도와 문화적 차원의 기제를 매개로 하는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를 의미한다.<sup>8)</sup> 한국적 가부장제의 역사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방대한 작업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여기에선 이를 세세하게 기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가부장제의 전개 양상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논의<sup>9)</sup>가 이미 이루어진 바도 있거니와, 이 글에서의 관심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부장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기능하는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그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한국적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드러나는 현대 한국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소설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남성상과 여성상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살펴볼 두 소설은 가정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분담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남성 작가가 그림으로써 기존의 남성지배의 가부장적 시각을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들 소설에 각인된 남성 작가의 시각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기존의 '남성' 지배의 역사 속에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내용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며, 우리 자신의 남성적 혹은 여성적 행위 속에는 이러한 사회의 지배적 시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경우는 아버지로서의 남성의 체험에 상대적으로

---

8) Sylvia Walby, *Theorizing Patriarchy*, 유희정 역, 『가부장제 이론』(이대출판부, 1996), pp.40~41 참조. 베버(Weber, 1947)는 남자들이 가장으로서의 지위를 통해 사회를 지배하는 정부 체제를 언급하는 데 가부장제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가부장제 이론이 주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에 의해 발전되어 오면서, 일반적으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 구조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게 되었다(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1988), p.58 참조).

9) 조혜정(1988), 앞의 책, pp.58~119 참조.

더 비중을 두고 있고, 『선택』의 경우는 물론 남성 작가의 목소리가 장씨 부인이라는 여성 화자에 의해 간접화된 경우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체험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두 소설은 그 재현의 대상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소설은 엄밀히 말하자면 작가의 생산 의도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버지』의 경우는 경제 위기와 맞물려 아버지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현실을 포착하고, ‘쓸쓸한 아버지의 뒷모습’이라는 대중적 이미지에 편승하면서 아버지 신드롬을 일으키는 데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발빠른 상업주의의 승리라 할 만하다. 반면 『선택』의 경우는 그러한 상업성을 전면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페미니즘의 사회적 확장을 막기 위한 한 보수주의자의 경계 및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일대 지상 논쟁을 불러 일으킨 것이기도 하다.<sup>10)</sup>

따라서 이 두 소설에 대한 비평적 접근은 다소 작가주의적이고 주제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문학작품이 이념의 축 또는 이데올로기의 축을 따라 창조된다는 가정과, 한 작가의 작품은 성(性)에 의해 결정되거나 상당한 정도로 제약된다는 가정<sup>11)</sup>을 내포하고 있는 접근이다.

10) 대표적인 것이 전여옥/이문열 논쟁이다. 『조선일보』, 97년 4월 24일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전여옥)와 『동아일보』, 97년 5월 1일자 동아시론-「망해가는 말」(이문열) 참조. 여기에 신영자·공지영 등이 가세하기도 하였다.

11) 이는 W.W. 모건이 지적인 페미니즘 비평론의 세 가지 원리 가운데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로 나머지 하나도 제시하자면, 남성중심의 정치·경제·문화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에서도 여성에 의한 실지(失地) 회복을 실천하려는 현실적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William W. Morgan, "Feminism and Literary Study: A Reply to Anette Kolodny", *Critical Inquiry*, 1976, summer, pp.809~810. 김열규, 「페미니즘 문학비평론은 왜 생겼는가, 무엇을 하는가」, 『페미니즘과 문학』, 김열규 외 공역, 문예출판사(1988), pp.12~13 참조.

## 1) 한국적 ‘아버지’의 가치에 대한 옹호—『아버지』에서 드러난 ‘아버지’상을 중심으로

이 소설은 아버지의 희생과 고독을 전경화하여 가족 안에서 아버지의 위치를 절대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족 안에서 다른 구성원의 위치를 부권에 종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아버지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장치가 책장암으로 인한 5개월 시한부 인생과 과묵하고 성실함이라는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의 성격이다. 이때 가족간의 소통의 차단 책임은 ‘가장’인 아버지가 아닌 다른 가족들의 잘못으로 환원된다.

상대적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희생과 사랑과 고독을 몰라 주는 자각 없는 무지한 존재로 폄하된다. 이는 딸 지원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편지 즉 가족에 대한 무심함을 질책하는 편지를 그의 친구 남박사가 읽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어떻게 네가 네 아비에게 이런 증오를……. 넌 진정 모르느냐, 아비의 그 깊은 사랑을. 진정 네 우둔은 아닐진대, 어찌 네가 이런 경솔을……. 넌 몰라도 나는, 그리고 우리는 안다. 그 얼마나 애뜻하고 절절한 사랑이었는지. 네가 모르는 35의 사랑을 우리는 감히 ‘35의 신화’라 칭했다. (중략) 그리고 부러워했다. 그런 아비를 가진 너를,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할 줄 아는 네 아비의 가슴을. 어찌 네가 그 아비 앞에서 가족을 말하느냐.<sup>12)</sup>

여기서 남박사의 시각은 그대로 독자의 지원에 대한 시각으로 전이되며, 그것은 바로 지원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철저히 지원의 잘못만으로 돌려질 수 있는 것인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35의 신화란 딸의 서울대 영문과 합격을 위한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노력을 가리키는데, 이조차 모르는 딸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체감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에서이다.

12) 김정현, 앞의 책, p.153.



결국 그가 찾아낸 길은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담은 소박하고 순수한 방법이  
었다. 정수는 그해 1년 동안 한번도 버스의 뒷좌석에 앉아본 적이 없었다. 앞  
에서부터 35번째 안에 자신이 있어야만 딸도 그 좁은 35의 판문을 통과할 것  
같아서였다. 아무리 피곤하고 뒤쪽의 좌석이 비어 있어도 그는 전체 승객의  
35번째 안에 들지 않으면 서 있기를 고집했다.

출근길의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열차가 도착하고 그 열차에서 함께  
하차하는 모든 이들 중 35번째 안에 개찰구를 빠져 나와야만 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계단 가장 가까운 곳에 정차하는 객차만을 고집했다. 그리곤 항상  
출입문 앞에서 대기했다. 열차가 도착하기 직전에는 스타트 라인의 육상선수처  
럼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땀방울을 시작했다. 에스컬레이터  
의 편리함보다는 호흡이 가쁘고 땀에 젖더라도 계단을 이용해 뛰었다. (중략)

그뿐이 아니었다. 직장에서는 그해 내내 35번째 안으로 출근했고, 심지어는  
1번부터 35번의 버스가 아닌 36번 이후의 버스도 이용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타거나 동료들의 승용차에 편승을 할 때도 번호판의 끝 두 자리가 35 내의 숫  
자가 아니면 절대 타지 않았다. 35, 그 꿈을 지키기 위해 그해 내내 35의 강  
박에 시달렸다. 그래도 힘든 줄 몰랐고 그것을 지켜내는 하루하루가 더없이 행  
복했다.<sup>13)</sup>

일부러 장황하게 인용한 것은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극진한 애정이  
얼마만큼 과장되어 표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특히 이러  
한 35의 신화가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이는 사실이고 보면, 부  
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러한 상황 설정이 독자가 다소 의아해 할 정도  
이다. 이와 더불어 그의 병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가족이 그에게 보이  
는 태도는 철부지 그 자체로 형상화되며 이로써 그의 고독은 극대화되  
고 이는 그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역설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5개월이라는 남  
겨진 기간 동안 가족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자 사방으로 수소문  
한다. 고등학생인 아들의 대학 등록금 준비, 가정의 생계를 꾸려야 할

---

13) 김정현, 앞의 책, pp.95~97.

아내를 위한 제과점 마련의 노력 등이 그것이다.

개연성이 부족한 플롯, 수사적 과장, 강력한 주정주의에의 탐닉이라는 대중 소설 일반의 특성을 이 소설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서사 구조를 통해 아버지 ‘김정수’의 평생의 단 한 번의 외도는 ‘자신만을 위해 부여안고픈 무엇’으로 정당화된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느끼는 설움의 정체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순간 자신이 아닌 철저히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다는 사실은 더이상 아름다운 희생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아버지상의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닐까. 도덕적 부당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을 위해 그야말로 ‘빠 빠지게’ 일하는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보상 심리의 발로가 아닐까.

따라서 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기존의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이 단순히 여성의 권리 확장 쪽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남성들은 인간이기 이전에 강한 남성이어야 하고, 강한 아버지이어야 한다는 지배 관념은 여성 못지 않게 남성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까닭이다.

남성성이 강조된 역사는 기실 그리 길지 않다. 현재 한국 남성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적 중압감을 조선조의 남성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기 힘들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윤 추구와 도구적 합리성을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정착되면서, 가족 부양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남성의 역할이 강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때 ‘남성다움’은 책임감, 합리성, 자제력, 결단력, 여성 및 자녀 보호적 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내/외의 분리를 통해 남성은 외적인 공간에서 더욱 도구적 인간이 되어 가며, 이때 가정은 유일하게 정서적 친밀성의 공간으로 남겨진다. 그 친밀성의 공간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의 시선은 밖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 남성의 강한 남자 콤플렉스나 퇴폐 향락에의 탐닉의 그 원인의 일단이 이러한 억압적 가부장제의 모습에 있는 것임은 그리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듯하다.

## 2) 현모양처와 선택-『선택』에서 드러난 여성상을 중심으로

이 소설은 ‘남성적 응시’에 길들여진 여성들에게 그 응시의 안락함을 상상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자신을 능동적 주체로 보지 못하게 하고, 남성의 시각에 의해 타자화된 존재로 바라보게 한다. 사실 이 소설을 읽고 현모양처의 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한 여대생의 고백도 있거니와,<sup>14)</sup> 이문열 또한 ‘자신들이 육아와 가사로 세월을 허비하는 줄 알았는데, 『선택』을 읽고 위로와 격려를 얻었다’고 말하는 주부독자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 소설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이러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그 선택지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양자 택일의 것이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모순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시집을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 가사 노동을 신성한 의무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고된 노역의 과정으로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의 선택지는 정해진 여성의 삶을 상정하고 그것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지니지 않는다.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다양한 기회를 부인할 것을 독려하고, 여성의 수동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모색하거나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능동적인 자기 고민의 과정이 부족한 것<sup>15)</sup>은 이러한 가부장제사회의 지배 관념을 여학생들이 자라면서 내면화한 결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4) 진중권,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1(개마고원, 1998) 참조.

15) Betty Frieden, 「여성 자아의 위기」, 이호재 편(1994),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비평사, pp.53~67 참조. 이 글에서는 정규교육과정이 끝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에 비해 더 방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여대생들의 고백을 육성으로 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여고생, 여대생들에게도 예외없이 해당되는 문제이다.

이는 작품 『선택』 안에서 시집 가기 이전의 여성의 삶을 ‘미정과 유예의 삶’으로 보는 것과 상통한다. 정해지지 않고, 유예되어 있는 삶. 이는 여성의 삶의 궁극은 남편의 존재에 의해서만 완성되고 채워질 수 있다는 의미로, 남자의 보조자 혹은 남편의 내조자에 여성으로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이것이 ‘현모양처’의 지배화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모양처’라는 말은 여성의 성역할이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의 유지와 관리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데, 이러한 현모양처라는 기표에 ‘유약함과 부드러움, 친밀성과 보살핌의 관리자, 보호되어야 할 대상’ 등의 기의가 연결되게 된 것은 남성성이 강조된 역사적 맥락과 관련된다. 예컨대 조선조 여성상은 현대의 ‘현모양처’상과는 다른바, 조선조의 여성상은 보호되어야 할 대상, 부드러움과 연약함이라는 여성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또한 일제의 압제와 6·25 전쟁 및 분단의 체험은 ‘아버지’라는 뿌리를 거세하였는데, 이때 ‘강한 어머니상’이 부각되었음은 그 당시의 문학작품들이 증언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현모양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따라서 이 이데올로기는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내외의 역할 구별이 뚜렷해지는 양상과 더불어 유포된 이데올로기라 볼 수 있다.

‘현모양처’라는 말 자체에 주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는 일본에서 유래한 말로, 명치 유신 정부가 현대적 산업 국가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 생활 전반의 개혁을 꾀하고자 했던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새로운 여성상을 ‘양처현모’라는 슬로건으로 제시한 것이 그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전통적인 모자 관계가 여전히 더 강조되어 ‘현모양처’라는 여성상으로 정착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신사임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이상적인 여성상은, 실제로 일본 명치 유신 이후에 ‘현모양처’라는 외피를 입으면서 공고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조선조를 거쳐 일제시대, 한국전쟁을 거치기까지의 강인하고 억척스러운 어머니상에 ‘연약함, 부드러움, 친밀성’ 등의 이미지가 덧씌워진 것은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가

장으로서의 남성상이 강화되면서부터라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조선조 여인인 장씨부인의 메시지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조선조의 교조화된 유교적 지배의 강화와 혈연적 통제의 강화 속에서 공고화된 어머니상을 현대에 들이밀고 있는 것은 그것이 탈맥락적이라는 이유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성과 권력의 관계에 있어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을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여성들은 나름대로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오히려 ‘효’를 매개로 한 가족적 모자 관계를 통해 상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입신양명이 이루어졌을 경우엔 ‘안방 마님’으로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16)</sup> 역사·문화적 맥락을 탈각하고 마치 그것이 자연적인 것인 양 전제하는 것은 따라서 그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 어머니는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이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크고 중한 이름이다. 오늘날에는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자기(自己)에 가리워져 다소 퇴색한 느낌을 주지만 그래도 그 이름을 떠나 성취될 여성의 위대함은 흔치 않다. 우리에게 세상의 위대함은 종종 인간의 위대함이며, 어머니는 바로 그 인간을 생산하는 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어머니와 인간의 양립 구도이다. 어머니는 ‘위대한’ 인간을 생산해 내는 위대한 일을 하는 존재인데, 이때의 ‘인간’은 남성들에 의해 지배화된 역사를 환기시키고 있는 듯하다. 왜 어머니는 역사에 참여하는 ‘인간’이어서는 안 되는지 반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 장씨 부인이 펼쳐 보이는, 가문의 융성을 통한 자아의 확대 논리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름 석 자조차 밝

16) 이를 조혜정은 ‘자궁가족’이라고 보고 있다. 실상 외국 연구가들도 어떻게 조선조 여인들이 그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 아들을 매개로 한 보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조혜정, 앞의 책, pp.78~88).

혀져 있지 않은 이 여인이 어디서 자신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모’로서 뿐만 아니라 ‘양처’로서 요구되는 윤리는 더욱 억압적이다. 순절이란 극단으로 이념화한 정조 의무는 인간간의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이를 섬뜩한 아름다움 즉 이념미라는 것으로 형상화한다. 이에서 더 나아가 순절은 시차(時差)가 있는 정사(情死)로까지 미화되어 드러난다. 그러나 이는 한 비평가의 비판대로 순절이 아니라 순장이다. 연인의 죽음을 견디지 못해 그 뒤를 잇는 것은 서구의 러브 스토리에도 간간히 등장하는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개연적 현실이라기보다는 낭만적 사랑의 극대화된 형태로서이다. 또한 이러한 낭만적 사랑은 두 남녀의 결합을 가문 대 가문 혹은 배경 대 배경으로 연결짓는 것에서 탈피하여 개인 대 개인의 결합으로 결혼이라는 기호의 의미를 새로 채워 나가는 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유교이념이 철저한 조선조에 어떻게 이러한 낭만적 사랑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죽음이 아름다운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 강요였다는 사실을 시인할 필요가 있다.

### 3. 가치의 갈등과 모색 : 개인주의적 가치와 가족중심주의적 가치

이상의 소설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가부장제가 가장의 지위에 대해 과중한 책무를 부과함으로써 강한 남성 콤플렉스를 유도하면서 여성의 희생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사적 공간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미화하고 절대화함으로써 여성의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두 소설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가족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함으로써 반박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부성과 모성의 문제는 사실 페미니즘 지형도 내에서도 해묵은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특히 모성에는 여성을 사적 영역에만 머물게 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

로 동원되는 이데올로기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자신이 아닌 타자 즉 자식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고결한 가치라는 점 또한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을 모든 여성에게 다른 가치에 우선하는 것으로 강요하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모성애의 가치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자식에 대한 체험이 전적으로 한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만 하는 것이 아님은 여성의 모성애를 미화해 온 것 만큼이나 공적·사적인 자리에서 토로된 적이 많다. 나혜석의 「母된 감상기」(1923)<sup>17)</sup>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그녀는 애초 기대하지 않았던 임신인 것으로부터 해서 임신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다는 것, 임신임이 분명해졌을 때 느꼈던 절망감, 더이상 자유로울 수 없고 태어날 아기에게 육체적·심리적으로 구속 받을 것에 대한 두려운 생각, 출산과정의 고통과 아기가 난 이후의 육아 부담, 그래서 실제로 임신기간 동안이나 출산 후에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을 느끼지는 못했다는 것 등을 거의 200자 원고지 80장 정도의 분량으로 상세히 적어 발표하였다. 당대 문단의 분위기에서 신여성으로서의 나혜석이 느꼈을 열외감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느 정도 일반 여성에게 공감의 여지가 있는 부분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성의 가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체험을 공론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각자가 스스로 경험하고 판단해 나가게 하는 문제일 것이다. 여성들은 언젠가는 그들 자신의 유용함을 위하여 그들 자신의 필요로부터 여성 자신의 문학 양식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는 버지니아 울프의 희망과 기대<sup>18)</sup>는 이러한 여

---

17) 모성의 신화를 깨뜨리기 위한 노력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언급된 글이다. 이는 최근의 모성성의 미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상통하는 것으로, 현재적 맥락에서도 여전히 유용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인용하였다. 이상경, 「한국 여성문학론의 역사와 이론」, 제1회 한국여성문학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p.17.

성 고유의 체험조차 남성에 의해 규정되고 틀지워지는 것에 대한 그녀 자신의 문제의식을 깊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켈러가 여성 고유의 경험이 독서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정 하에 독자의 경험의 문제를 논구한 것<sup>18)</sup>도 이 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최근의 여성작가들의 부각은 균형 잡힌 시각의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여성의 체험을 공론화해 간다는 점에 있어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여성문학론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문학을 생산하는 물질적 조건이 다르며, 이는 그들이 쓰는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성의 이데올로기는 남녀의 작품이 읽히는 방식과 그 작품이 정전으로 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sup>20)</sup> 따라서, 성의 개념이 문화적으로 정의되고 재현되는 방식에 주목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여성문학론의 할 일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교육적 처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다. 예컨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처용가」의 경우, 처용의 아내, 그것이 타의에 의해서건 자의에 의해서건 역신과 동침한 아내의 심경과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다는 지적<sup>21)</sup>에 대해 우리는 왜 이리도 신선하고 새롭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가. 왜 여성의 체험에 대한 언급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다.

부성과 모성에 관한 문제는 개인 대 가족이라는 문제로 환원되기 쉽상이다. 개인주의적 가치는 평등의 가치와 상통하는 것이며, 그 맞은 편

---

18) Virginia Woolf(1945), *A Room of Own*, Harmondsworth, Middlesex, p.77. 안네트 콜로드니, 「페미니스트 문학비평의 몇 가지 방향들」, 김열규 외 공역, 앞의 책, p.56에서 재인용.

19) Jonathan Culler, *On Deconstruction*(Cornell University Press, 1982)의 1장 1. Reading as a Woman을 참조할 것.

20) 이상경, 앞의 글, p.27 참조.

21) 최혜실, 「외국에서의 한국문학교육」, 『문학과교육』, 1998.가을, p.226. 여기서 최혜실은 해석이 권력과 밀착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에는 가족주의와 애정적 보살핌(nurturance)이 있다. 이러한 가치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문제는 특정 가치가 전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이외의 가치를 왜곡, 폄하하면서 후경화해 온 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정의 의미에 대한 다음의 비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정의 의미의 도치 내지 반전에 주목하면서, 가정과 개인의 관계를 어머니 닭과 달걀의 관계에서 달걀 껍질과 배아의 관계로 환치시킨 것이 그것이다.<sup>22)</sup> 가령 오정희의 『바람의 뉘』에서 집과 가족의 관계는 달걀 껍질과 노른자 속의 배아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배아가 병아리로 자라게 되면 껍질은 어차피 깨어져야 한다. 그렇듯이 가족 구성원의 자아가 완성되기 위해서, 가정은 달걀 껍질의 운명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통적으로 어머니 닭과 달걀로 상징되던 집과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뒤집힌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전면화된 가족주의적 가치 이면에 희생되어 왔던 개인주의적 가치의 부상이라 할 만하다. 가족 혹은 가정은 이제 더이상 ‘그래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식의 서사의 결말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모순이 분출되는 서사의 시작 지점인 것이다.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희생만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며, 이때 한 개인으로서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삶은 후경화되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모의 희생이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에의 기대로 정당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조선 시대의 안채를 독차지하며 안방마님으로서 말년을 보내던 조선조 여인네들에 비하면 이는 아주 소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의무의 관계가 상호 의존의 고리를 만들면서 자신의 삶의 기회들을 차단하게 되는 과정이 전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족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그 속에서 형성되어

---

22) 김열규, 앞의 글, pp.9~10 참조.

가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주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 4. 가치 선택과 성 정체성 형성

가족은 사회적 성과 연령에 따라 구조화되므로 남성·여성·소년 그리고 소녀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가족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sup>23)</sup> 따라서 특정 작품에서 가족구성원들 개개의 체험을 일반적인 것으로 환원할 수 없다. 그러나 '화목한 가정' 안에도 어떠한 식으로든 갈등과 불평등한 권력 분배가 존재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갈등과 권력의 불균등한 분배가 사회구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한에서는 특정 위치에서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경험은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내적 생활은 외적인 경제조직, 여타 사회제도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가족 내 구조를 통하여 거의 대부분의 성 정체성을 획득해 나간다고 볼 때 따라서 가정영역이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TV 드라마나 광고 등에서도 이상적인 가족상을 보여줌으로써 가족 내에서의 각자의 역할 및 나아가 성 역할까지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연화 이면에 특정 가치가 보호되고 우선시되고 있음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 정체성 형성의 문제는 교육의 장에서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것은 대중소설이건 혹은 TV 드라마이건 매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 내에서 개인적 체험에 대한 거리 두기 및 성찰의 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이 글에서 검토한 두 작품은 이러한 매체로서의 의의 및 작품 자체의 대중적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분석한 것이다. 학생들이 대중 문학에 단순히 무비판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학

23) Barrie Thorne·Marilyn Yalom(1982), 권오주 외 역(1991), 앞의 책, pp.8~9 참조.

생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으로서의 중요성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미 가족 내에서의 역할 모델을 통해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지만, 실제 학생들의 체험의 장에서 남성으로서의 혹은 여성으로서의 체험은 다른 어떤 구체적인 체험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교육적 실천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온 성 역할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과 연계되어 내면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더불어 '진행 중인' 자신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능동적인 가치 선택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분담은 어떠한가,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버지상과 어머니상의 실체는 무엇이고, 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성역할 모델은 어떠한 것인가, 그러한 성 역할 모델과 자신의 삶의 방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등의 문제들에 대한 집단 토론이나 글쓰기의 과정이 위에서 분석한 소설들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다.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유형화하며 재구성해 냄으로써, 이를 다양한 삶의 가능성 속에서 변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다.<sup>24)</sup> 다시 말해 성 정체성 형성과정에 자신의 성찰적 의지<sup>25)</sup>를 반영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러 역할들과 규범, 관습들 및 이에 대한 기대치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규정적인 구조가 존재하므로, 상

---

24) 더글라스 켈너, 차원현 역(1997), 「대중문화와 탈현대적 정체성의 구축」, 스콧 래쉬, 조나단 프리드먼 편, 『현대성과 정체성』, 현대미학사.

25) 이는 기든스의 개념으로 다음의 책을 참조할 수 있다. 기든스는 이를 성찰성의 기획으로 구체화해 나가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본다.

Anthony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권기돈 역, 『현대성과 자아 정체성』(새물결, 1997).

Anthony Giddens(1991), *Transformation of Intimacy-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y*,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새물결, 1996).

호 인식의 복잡미묘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기 원하는 개인이라면 이러한 요소들을 잘 선택하고 재생산해 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적 맥락에서도 수동적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서의 학습자의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개입해 나가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성지배의 과정 혹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특성화된 모성애나 혹은 강한 남성상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시 보게 하고, 문학작품이나 대중 매체에서의 재현물을 통한 추체험 및 비판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속한 가족과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관여하게 하는 것의 의미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언어/문학 텍스트의 교육이 학생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한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부당하게 평가절하되어 온 개인적/집단적 주체들의 정체성과 문화의 목소리를 구성하는 데에 이러한 교육의 목표는 있게 될 것이다.<sup>26)</sup>

교육의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인격적 성장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러한 유동적인 정체성 형성에 교육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지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후속 작업이 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자 료

김정현(1996), 『아버지』, 문이당.

이문열(1997), 『선택』, 민음사.

전여옥(1997),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조선일보』, 4.24.

이문열(1997), 「망해가는 말」, 『동아일보』, 5.1. 동아시론.

26) 정현선(1996),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적 문학성 교육에 대한 고찰」, 『화산김은전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p.92 참조.

## 참고문헌

- 김열규(1988), 「페미니즘 문학비평론은 왜 생겼는가, 무엇을 하는가」, 『페미니즘과 문학』, 김열규 외 공역, 문예출판사.
- 이상경(1998), 「한국 여성문학론의 역사와 이론」, 제1회 한국여성문학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 이진경(1997), 「근대적 주체와 정체성」, 『경제와 사회』, 1997.가을호, 제35호.
- 정현선(1996),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적 문식성 교육에 대한 고찰」, 『화산김은전 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조혜정(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 진중권(1998),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1, 개마고원.
- 최혜실(1998), 「외국에서의 한국문학교육」, 『문학과교육』, 1998.가을, 제5호, 문학교육연구회.
- 현택수(1997), 「현대의 성 정체성」, 『경제와 사회』, 1997.가을호, 제35호.
- Buckngam, D., & Soften-Green, J., *Cultural Studies Goes to School*, Taylor & Francis(1997).
- Culler, J.(1982), *On Deconstruc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 Frieden, B., 「여성 자아의 위기」, 이효재 편,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창작과 비평사, 1994).
- Giddens, A.(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권기돈 역, 『현대성과 자아 정체성』(새물결, 1997).
- Giddens, A.(1991), *Transformation of Intimacy-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y*,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새물결, 1996).
- 켈너, D., 차원현 역(1997), 「대중문화와 탈현대적 정체성의 구축」, 스콧 래쉬, 조나단 프리드먼 편, 『현대성과 정체성』, 현대미학사.
- 콜로드니, A., 「페미니스트 문학비평의 몇 가지 방향들」, 김열규 외 공역, 『페미니즘과 문학』(문예출판사, 1988).

- Slack, J. D., "The theory and method of articulation in cultural studies", ed. by David Morley and Kuan-Hsing Chen, *Critical Dialogues in Cultural Studies*, London and New York(1996).
- Thome, B., Yalom, M.(1982), *Rethinking the Family*, 권오주 외 역,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한울 아카데미, 1991).
- Walby, S.(1990), *Theorizing Patriarchy*, 유희정 역, 『가부장제 이론』, 이대 출판부(1996).